

제15회 시민의 날 경축 ■ 제17회 부산무대예술제
극단 전위무대 • 극단 레파토리시스템 • 극단 처용 • 극단 하늘개인날 합동공연

안나 크라스티



섬은 바다 건너 있기에...



이기원
극단 부산레퍼토리시스템

역경을 딛고 일어난 인간의 모습은 아름답다.
얼마전 청각 장애인인 처녀가 미국 최고의 미녀로 뽑혔다.
그건 인간승리일 뿐만 아니라 미완의 인간 복음이다.

완벽한 인간이 있을까?
빛과 소리를 통한 영혼의 교감이 예술의 본질일진대 제 눈을 뽑아 인생의
참의미를 절규하는 외디푸스, 리어왕, 그들은 확실히 비극의 주인공답다.

완전한 예술, 한 치 오차도 없는 인생은 삭막하다. 하여 종교가 형성되었고,
연극은 그 영원한 일회성으로 끝난다.

79년 말, 2, 30대 장발의 총각 몇들과 그들보다 나이든 아저씨 몇 분 그리고
아가씨 몇이 만나 〈안나 크리스티〉 부산초연을 했다. 그게 15년 전 일이다.

시간은 살같이 흐르고 산천은 나날이 변하는데 그때의 〈안나 크리스티〉.
강산이 한 번 하고도 반이 더 변해 버린 지금 또 〈안나 크리스티〉 그때 그
사람들의 얼굴엔 주름살 번졌고 지금 연출의 머리엔 ‘아이러니’란 단어만
허공처럼 맴돈다.

운명에 질식당한 인간들의 모습.
인습과 환경, 시대와 상황에 포박된 모든 인간들은 숙명의 노예다. 그들이
내는 소리는 신음이요, 보이는 것은 고통이다.
우리가 연극을 운명으로 느끼고, 그 피곤함을 팔자려니 할때 세월은
현기증이요, 그 판은 죽을 판 살판이다.

〈안나 크리스티〉 작품의 마지막 대사
“안개, 안개, 안개! 더러운 놈의 날씨! 우리의 앞길은 아무도 모르지. 암,
모르고 말고 저 망할 놈의 바다만이 알고 있지.”—붕하고 뱃고동 울리며
막이 내린다—

그렇다. 15년전 부산연극이 오늘과 같으리라곤 아무도 몰랐고 15년 후
부산연극, 부산연극인들의 앞길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다만 “안나의 대사에 나오듯이 “우린 집이 필요하고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며 그럴려면 배를 타고 떠나야 한다.”
그 말만은 우리 모두가 안다. 인정한다. 섬은 바다 건너 있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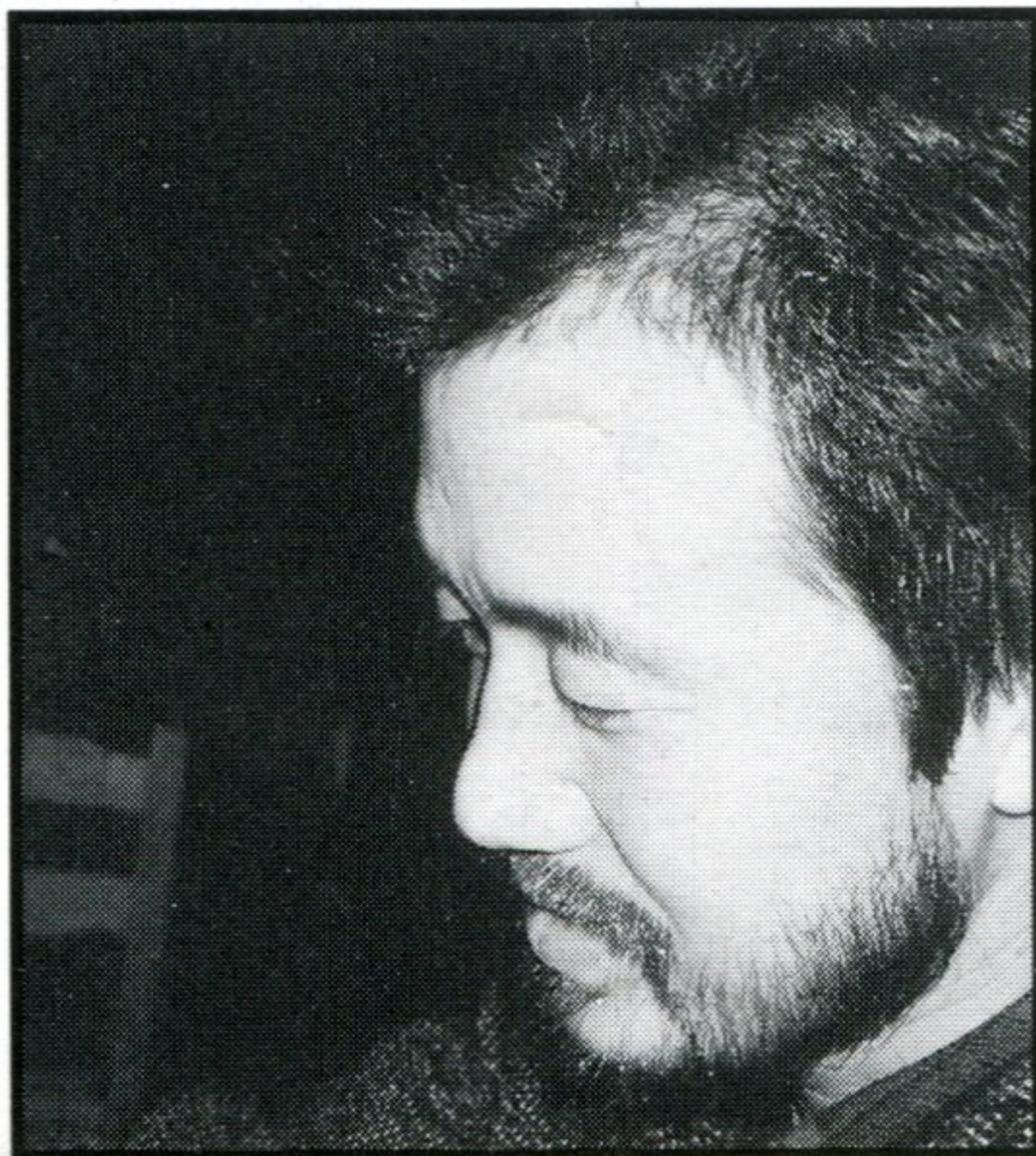
08^{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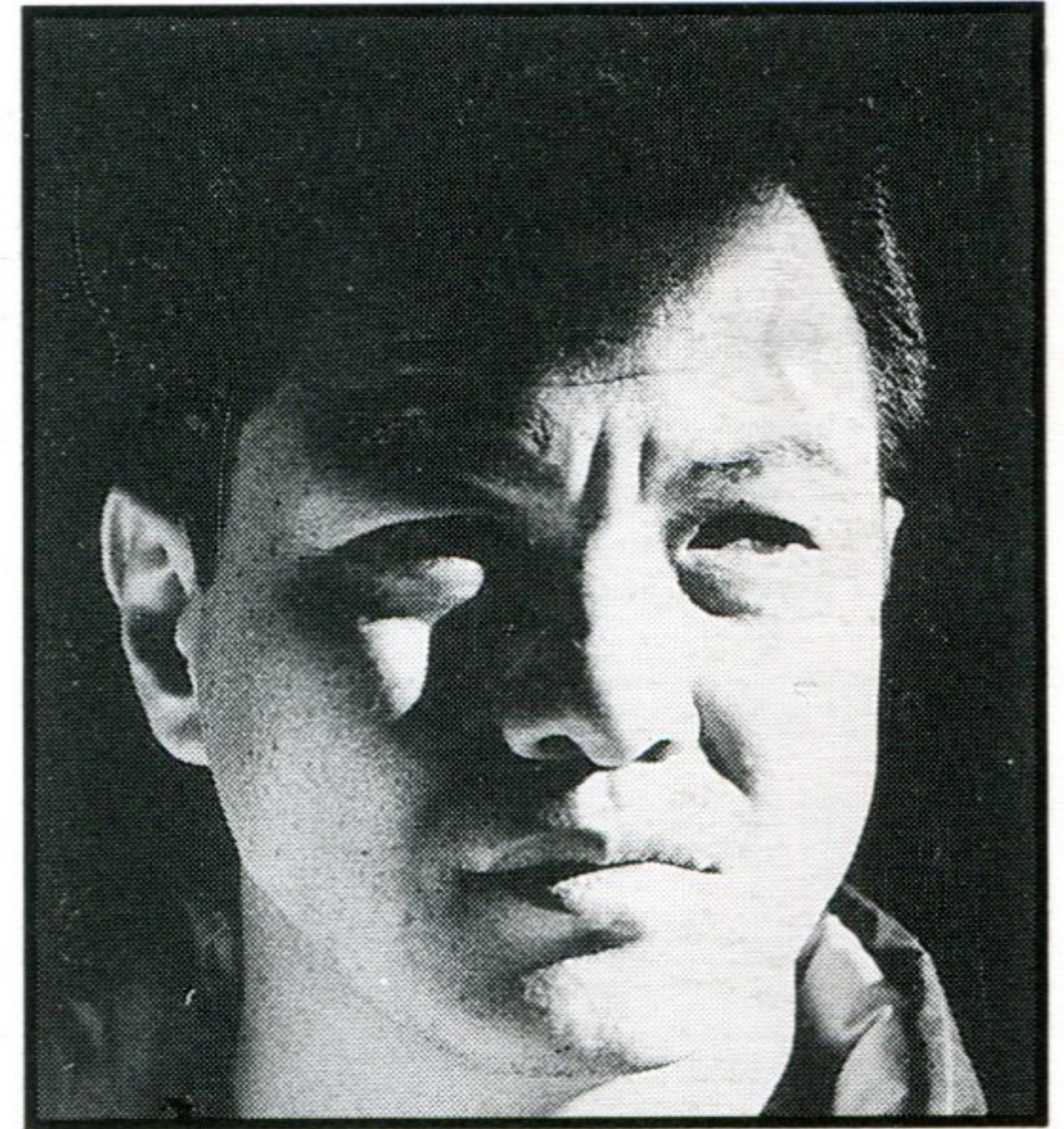
안나/박미형



벌크/권철



크리스/이상복



래리/박상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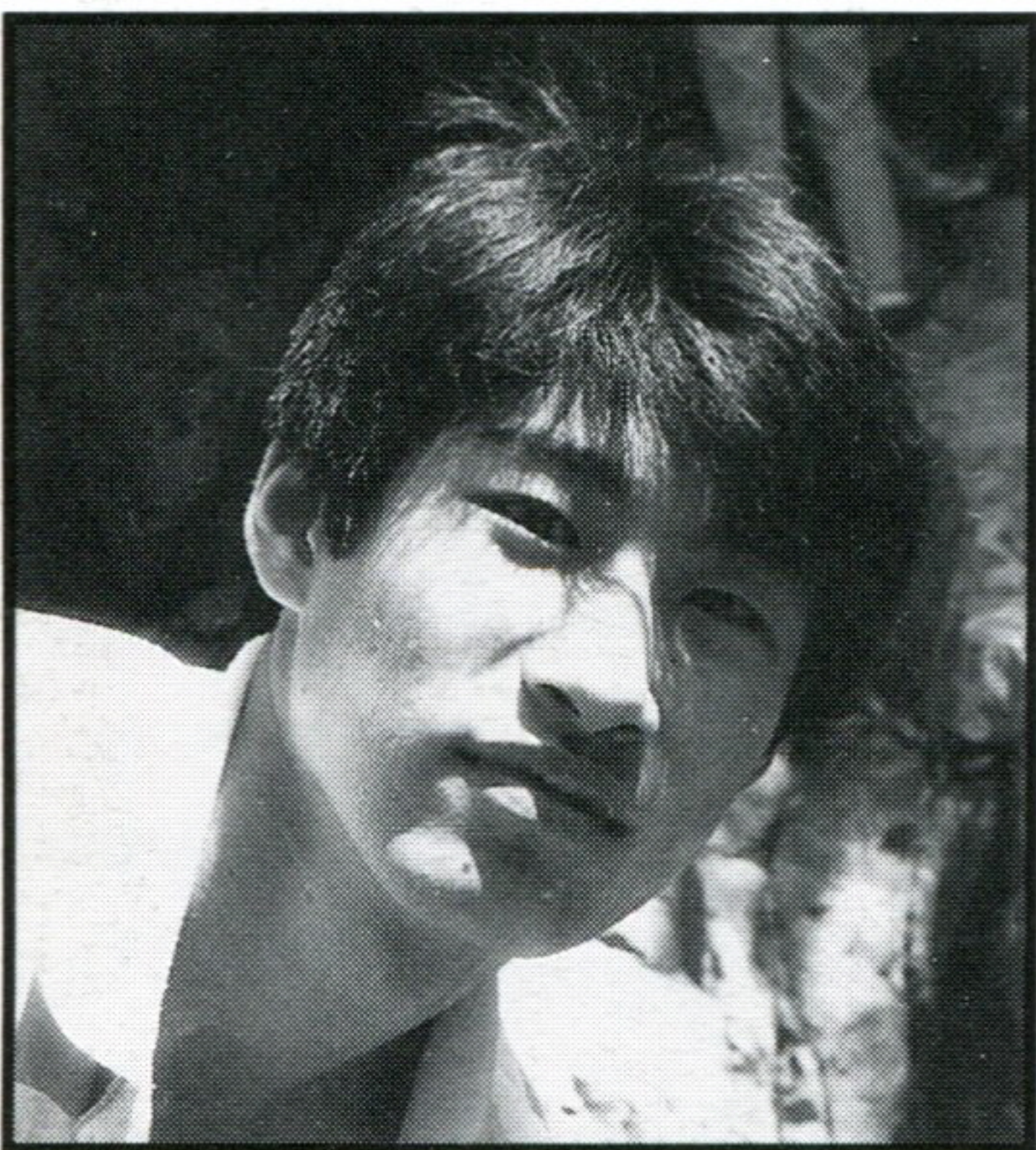
멀티/임해련



자니/이정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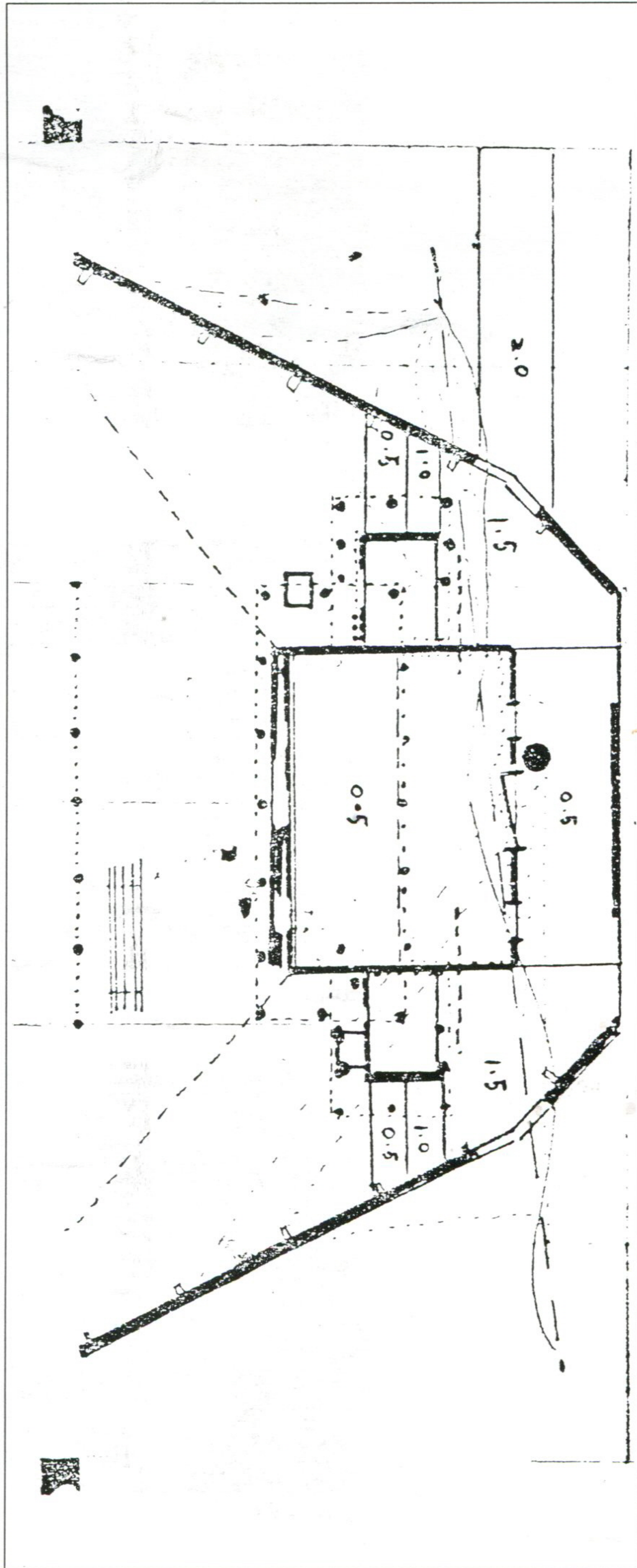


존슨/김승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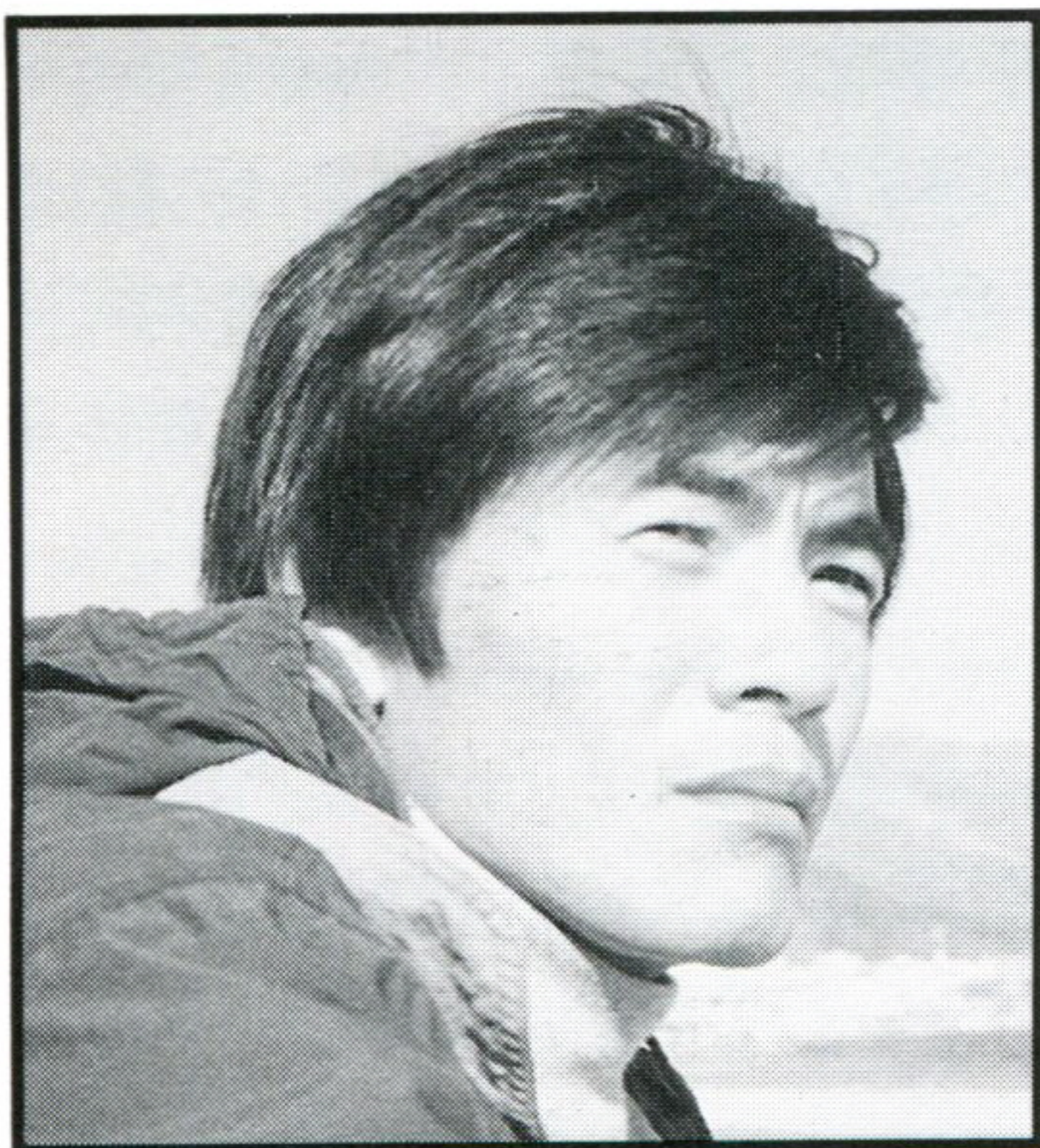


노무자A/최영화

● 노무자B/진영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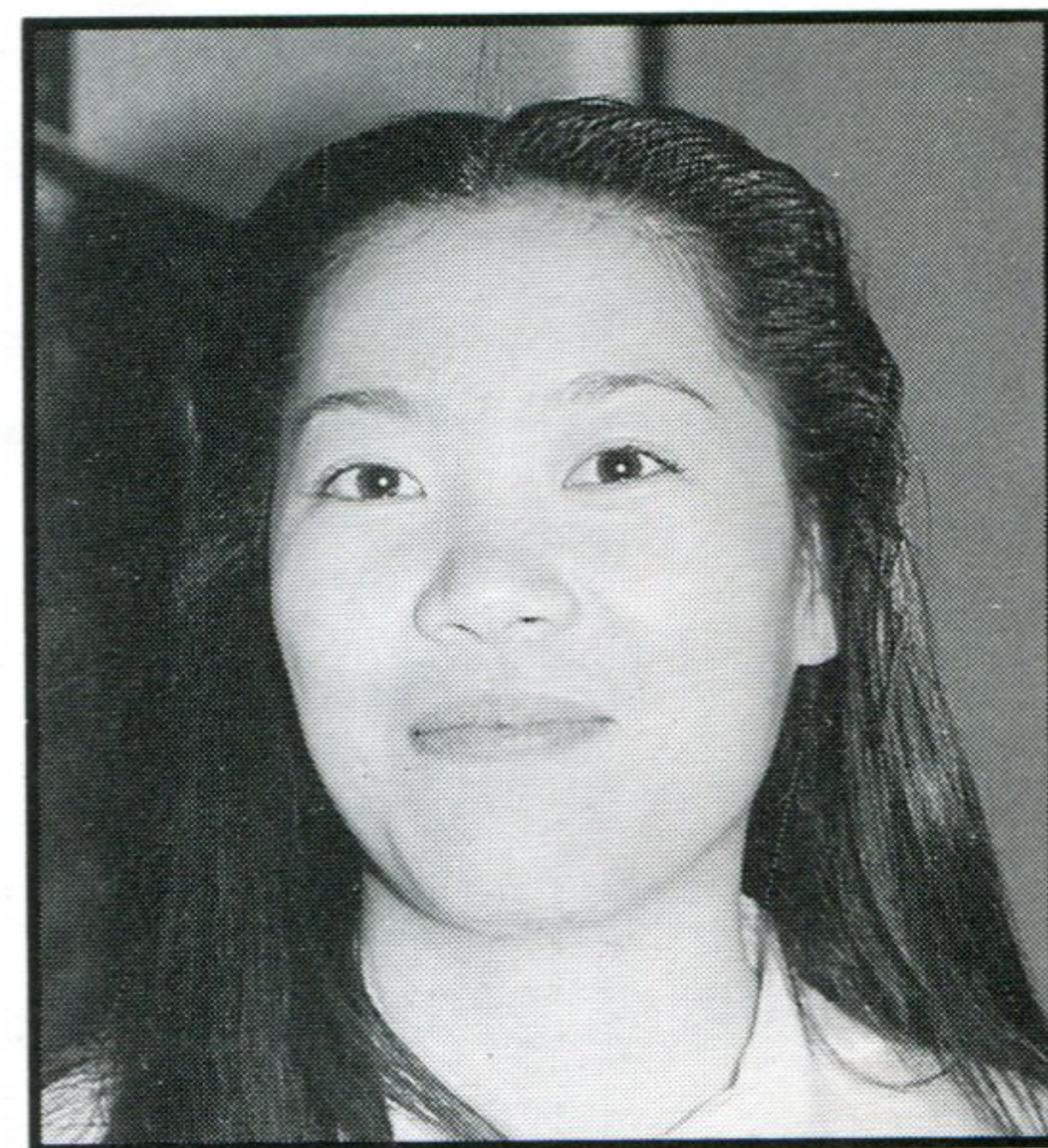
12^{STA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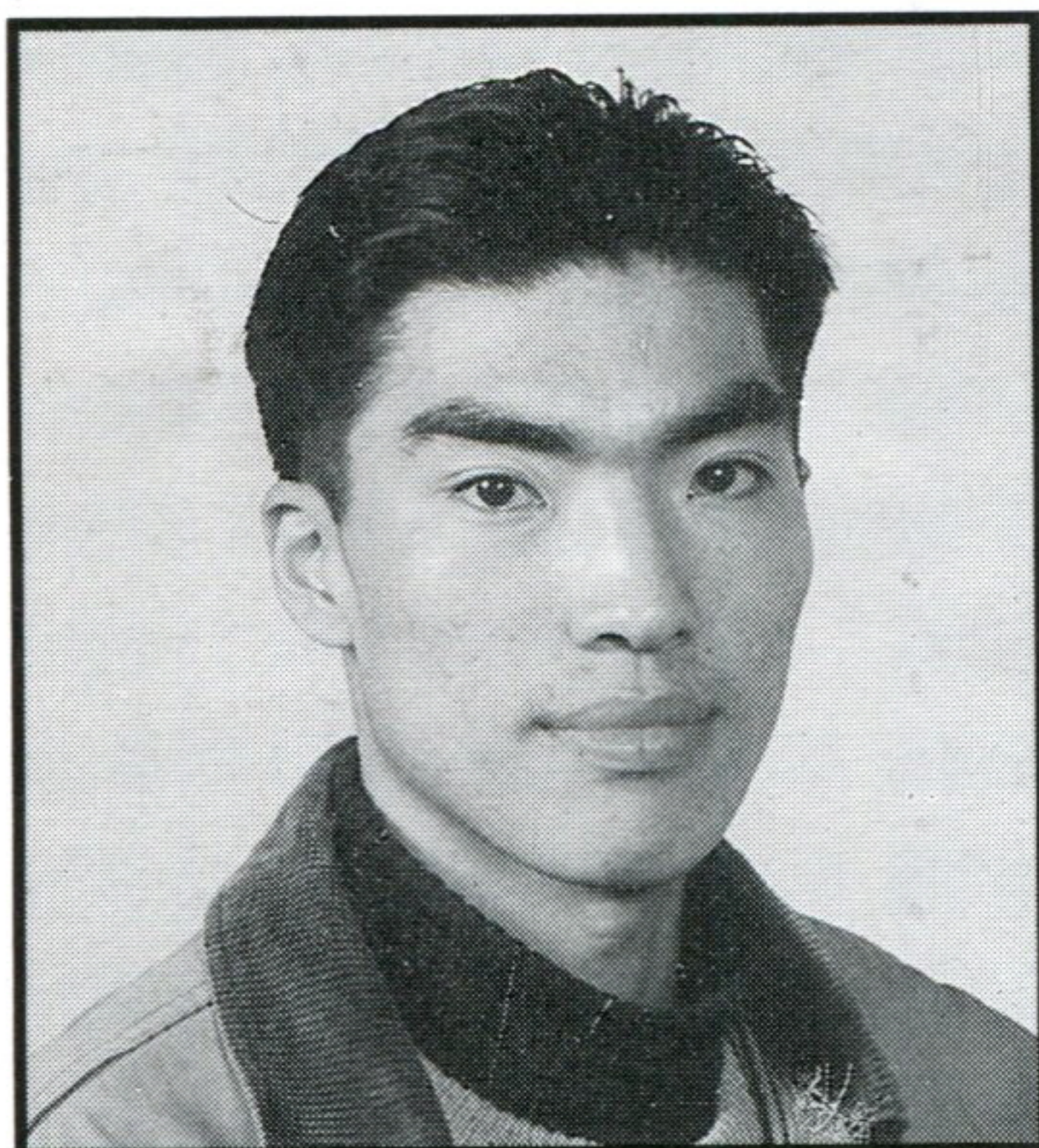
무대감독/김인덕



무대미술/서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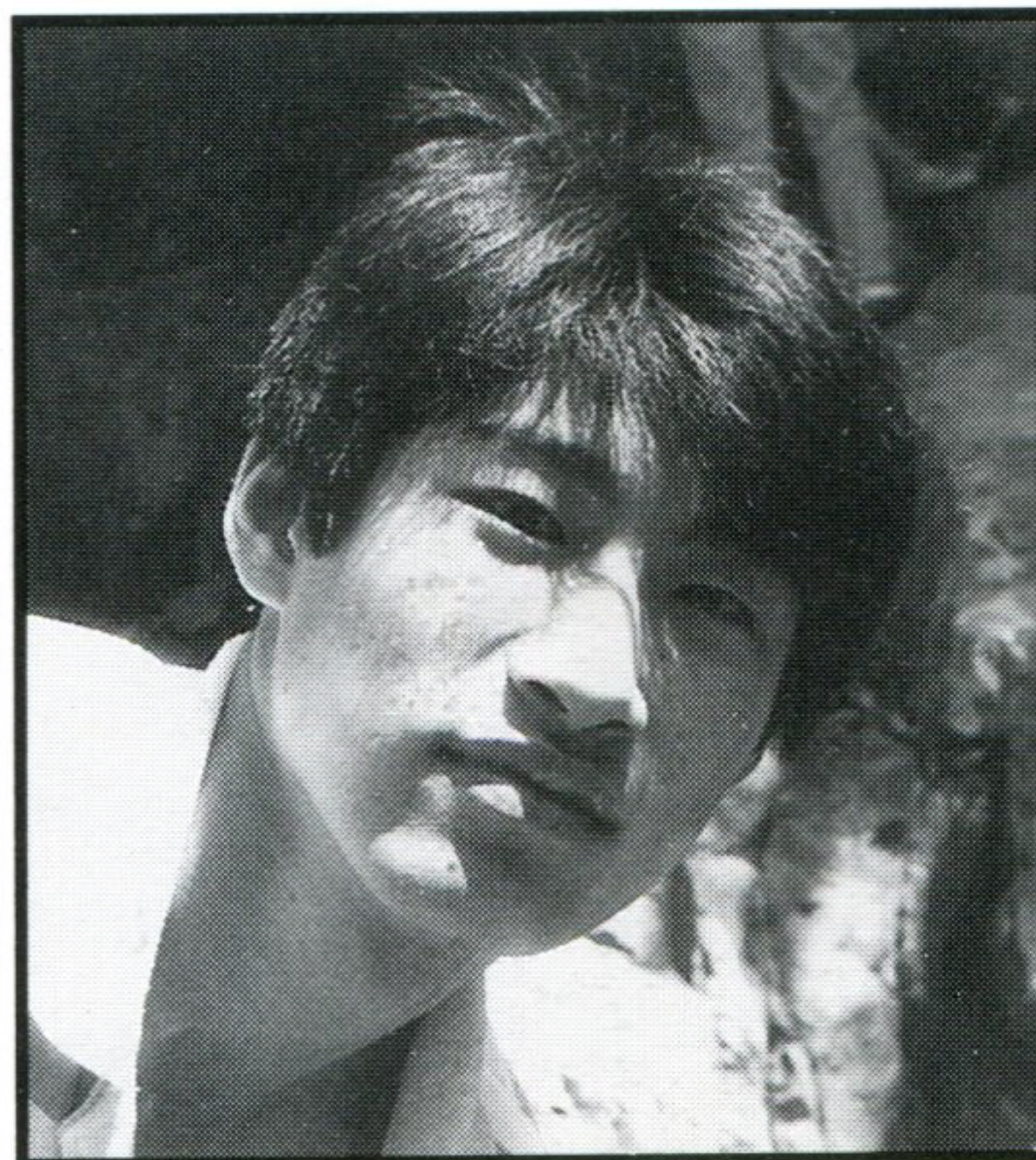
음향/성기조



조명/성낙경



의상/민순라



장치/최영화



진행/강정임